나주시, 농산어촌개발 산·학·연 교류 강화

농업진흥재단·동신대와 업무 협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공 다짐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과 국찬 동신대 전남형농산어촌지역개발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 등 관계자들이 농산어촌 지역개발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농촌사회 자립과 지속 성장을 구현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산·학·연 교류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동신대 전남형농산어촌지역개발전문인력양성사업단,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기반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목표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내용은 ▲전남형 농산어촌개발 전문인력 양성 ▲농산어촌개발사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농산어촌개발 연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의 배경이 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나주시가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 유·무형 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주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나주 상생푸드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비 49억원 등 총 7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상생푸드 공유가공 복합커뮤니티 센터 구축 ▲공유부엌 운영 ▲액션그룹 육성 및 네트워킹 ▲상생푸드 공유정보 관리시스템·창의사업 개발 등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먹거리산업 선도 인력 양성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찬 동신대 전남형농산어촌지역개발전문인력양성사업단 단장도 "농업농촌 관련 우수 인재배출을 위한 커리큘럼 강화를 통해 대학 육성 인력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농촌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반재운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부이사장은 "나주푸드플랜을 통해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강진군,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확보 박차

군동면 명암지구 배수개선·강진만 생태공원 하수장 설치 지원

강진군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주요 재난 및 현안 사업을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강진군에 따르면 유미자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최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지역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과 주민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재난 사업분야에 준공 후 약 10년 정도 지난 가우도 다산·청자다리(옛 출렁다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케이블 피복, 목재 난간 및 바닥데크 등 보수·보강 공사와 강진만과 인접해 만조 시 탐진강 수위 상승 등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군동면 명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등이다.

현안 사업분야에는 최근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 생태탐방 학습홍보관, 생태체험관 등 시설물 확장으로 인한 연안해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강진만 생태계 환경 보존을 위해 생태공원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 지원 등이다.

특히 군동면 호계지구 정주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수요 및 보행량도 늘어남에 따라 도로 확장과 교차로 구조 개선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강진소방서에서 코아루아파트 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군은 2021년 특별교부세 62억원을, 2020년에 29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아열대작물 메카' 장성군, 미래농업대학 입학식

장성군이 지난달 농업인회관에서 장성미래농업대학 15기 입학식을 진행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지난달 농업인회관에서 장성미래농업대학 15기 입학식을 갖고, 신입생 76명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2008년 문을 연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지금까지 159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농업 발전의 기틀을 다져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아열대학과를 개설해 주목받았다. 올해는 아열대작물 재배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해 아열대학과 2기를 개설했다. 39명의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해 ▲유망 아열대작물 재배 동향 파악 ▲주요 아열대작물 재배기술 습득 ▲선도농가 우수사례 공유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작년 1기 아열대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도 마련했다.

신설된 '청년CEO' 학과도 관심을 끈다. 지역 내 청년 농업인 23명에게 ▲디지털 농업 ▲농기계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맞춤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15기 신입생들은 오는 11월까지 20회에 걸쳐 총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국내 최고의 전문 강사와 선도 농업인이 강의를 맡아 기술 수업과 현장 실습을 진행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하늘까지 이어진 제암산 연분홍 철쭉 2일 장흥군 제암산(807m) 철쭉평원이 연분홍으로 물들었다. 제암산 철쭉평원은 30년 수령의 철쭉이 100만㎡에 걸쳐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제암산은 분홍꽃 단일 품종 철쭉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매년 5월 초 절정을 이룬다. 〈장흥군 제공〉

화순군, 새 소득작목 단호박 재배단지 본격 조성

화순군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단호박 재배 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화순군은 지난달 27일부터 '노지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23개소, 9.25㏊규모의 우량 단호박 모종을 공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사평면에 시행된 1읍면 1틈새 소득 작목 육성 시범사업의 연장선으로 재배 면적을 기존 5㏊에서 9.25㏊로 확대, 추진되는 것이다.

수확한 단호박은 (주)씨알상사와의 계약을 통해 출하될 예정으로 판로 걱정 없이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단호박은 혈압을 조절하고 부종을 제거하는 칼륨과 눈과 간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또 100g당 66㎉로 낮은 열량과 함께 섬유질이 풍부해 적은 양으로 높은 포만감을 채워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좋다.

이번에 공급한 단호박 '만냥'은 부드럽고 포근한 식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호박만의 달콤함을 가져 맛이 뛰어날 뿐 아니라 착과 전까지 덩굴이 많이 뻗지 않아 재배 또한 용이해 생산자에게도 인기 있는 품종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군, 함평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 10%로 확대

함평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함평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중이다.

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평사랑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판매 기간은 오는 31까지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70만원(지류형 30만원, 모바일형 40만원)이다.

단, 이번 특별할인은 개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 및 단체는 제외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NH농협은행·함평축협·광주은행·함평천지새마을금고·함평군산림조합 등) 19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설치해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